

한단지보의 愚를 걱정하며



광주교대 총장 이 정 재

과거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 수도 한단(邯鄲)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매우 경쾌하고 우아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나라 수릉(壽陵)에 사는 한 소년이 그들의 걸음걸이를 배우고자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단에 달려가, 걷는 모습을 훑내내기 시작하였으나 좀처럼 잘 되지 않아 다른 방식의 습득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과거의 걷는 방식을 지워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새로 걸음걸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같지 않게 걸음걸이는 익혀지지 않았으며 결국 걸음 배우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이전의 걸음걸이를 잊어버리게 되어 그는 기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요즈음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도 위 예화와 같은 한단지보(邯鄲之步)의 우(愚) 즉, 남의 훑내만 따라하다 진정 우리의 좋은 점을 잃어버리거나 앎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기곤 합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나라들은 서방 여러 나라의 부러움 속에서 경제 성장을 거듭하여 왔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여러 국가들은 아시아의 앞바다인 태평양의 시대임을 선언하며 서로 태평양권에 속하기를 자원했으며, 러시아는 스스로 아시아 국가임을 주장하는 등 동양을 배우는 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중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이 갑작스런 외환 위기와 자국 화폐가치의 폭락으로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자 상황은 바뀌어 동양사관은 다시 땅 속에 묻히고 서방식 사고가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아시아권 위기도 전적으로 국가제도와 국민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자들이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근본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실정을 감안한 현명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교육개혁은 백 년을 바라보고 추진해야 하는, 다른 어떤 개혁보다도 전문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개혁의 성패가 21세기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21세기와 가장 근접한 인재의 배출 기관이며, 초등교육을 시작으로 교육의 종착역에 해당하는 대학의 개혁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21세기의 첫 장을 장식할 훌륭한 사회인을 배출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학 개혁은 개혁을 위한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95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오던 교육개혁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욱 박차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기업체의 구조조정과 함께 대학도 통폐합 및 퇴출을 시도하고 대학 내에서는 유사학과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단순히 기업체의 경영마인드를 대학 교육에 도입한 것이라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야 하는 경영 전략과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훗날 효과를 나타내는 교육과는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잘된 점이 미래에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며, 지금의 잘못된 점이 나중에는 오히려 잘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교육정책을 오직 가시적인 개혁만을 위해 추진하여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정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대학개혁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수행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대학 개혁은 대학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률적 기준으로 대학 평가를 하기보다는 대학의 자체 개혁 프로그램에 의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자기 몸의 질병은 자신이 제일 먼저 알듯 각 대학의 취약점은 대학 종사자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 개선하고 발전시킨 점에 대해 평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제시한 평가자료는 자칫 대학 스스로의 문제점을 숨기고 평가항목에 나와 있는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라고 할 수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상과 같이 대학개혁에 관한 두 가지 제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학개혁은 무분별한 선진 대학제도의 도입이나 IMF 체제하의 단순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학습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에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개혁이 시행착오 없이 좋은 결실을 맺어 지금의 경제난국을 하루속히 탈피하고, 우리나라가 21세기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